明知大學校
MYONGJI UNIVERSITY

제 20회 Global Leadership Program 보고서

이삭조

경영정보학과 60141253 김이삭

경영정보학과 60141254 김종호

경영정보학과 60141287 조재휘

明知大學校
MYONGJI UNIVERSITY

목 차

1. 탐방 기간 중 보고 배운 점

2. 자유 탐방 활동 내용

3. 후기

1. 탐방 기간 중 보고 배운 점

저희 팀원 세 명 모두는 이번 제 20회 Global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베이징과 상해, 홍콩보다 높은 GDP지수를 자랑하는 심천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 모두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중국의 국가 이미지만 보더라도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인한 짝퉁 시장의 성지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조품을 만드는 것에는 특화되어 있을 진 몰라도 그들 스스로의 창조성과 독자성이 담긴 기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습니다. 허나 현재 세계적 강국인 미국과 G1, G2를 다투는 중국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소재를 천장에 두른 친환경적으로 건축 된 공항을 뒤로 하고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와중 목격한 장면은 기대감과 의구심을 품고 있던 저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 택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도 힘들뿐더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심천에서는 모든 택시가 전기자동차 택시였으며 오히려 휘발유나 경유차 택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의 제조업체는 BYD(비야디자동차) 1995년 설립한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자동차 회사로 2019년 전체 매출 중 배터리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중국의 대중교통이 석유차에서 친환경

에너지차로 대체되는 변천 과정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친환경적 정책의 부단한 노력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품고 있던 의구심을 날려버리는 강렬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심천시의 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microsoft ignite the tour를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먼저 가보려고 했던 세션은 통합 개발 부분의 MDEV50 (Windows10 운영체제의 개발자 플랫폼 및 최신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었지만 일정 상의 문제로 인해 오후에 진행되어 참여하지 못해서 OPS30(실패로부터 배우기)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OPS30는 Tailwind Traders의 실패 발생 후 사후 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형성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시던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인시던트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았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솔루션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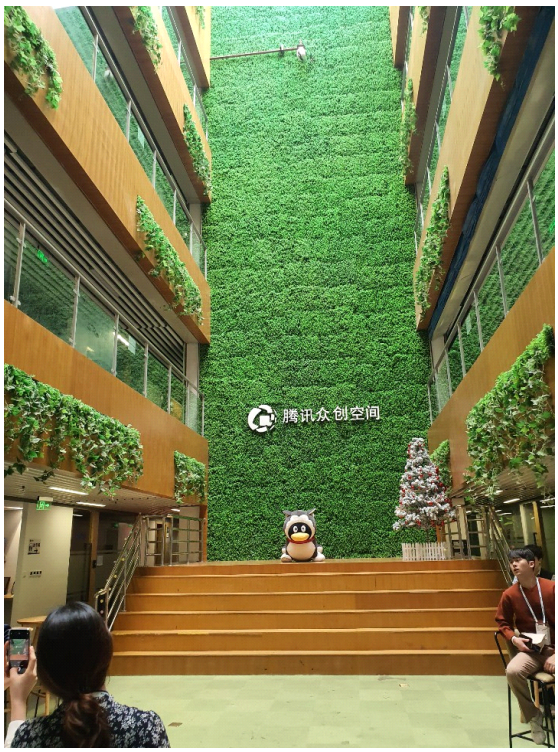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 연달아 이어진 저희가 참여하고 싶었던 네 번째 세션인 Microsoft teams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TMS30를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MS teams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설명해주는 세션이었습니다. Microsoft teams 란 Office 365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쉽게 말해 MS 오피스와 연동된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 오피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협업과 팀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과도 연동되는 툴입니다. 팀

원들 개인적으로도 MS 오피스는 익숙하지만, MS teams 에 대해 접해보는 일은 처음이었고 얼마나 큰 활용도가 있는 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성 부분이나 상용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툴을 대표하는 슬랙이나 MS teams와 같은 툴들이 얼마나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세션에서는 대표적 경쟁 툴인 슬랙을 넘어서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천300명 이상, 매주 1천 900만명 이상이 MS tea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MS 오피스 이용자에 한해 2017년 3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가능하게 전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국내 기업의 기업 내 메신저 사용 빈도수를 찾아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외 메신저로는 카카오톡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툴로는 MS teams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방문 한 곳은 텐센트 산하 중창공간 즉, 텐센트 창업 인큐베이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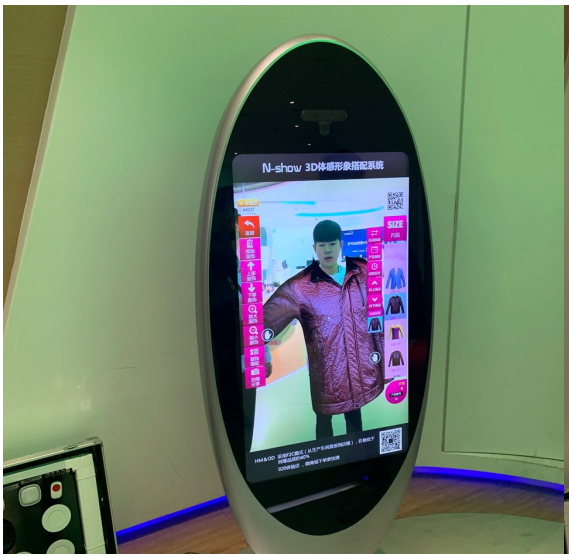
2017년 10월 현재까지 31개의 텐센트 중창공간이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텐센트 중창공간의 주요 업무는 인큐베이팅을 기본으로 스타트업 관리지원, 교육, 멘토들과의 교류, 투자연계, 창업가들 간 네트워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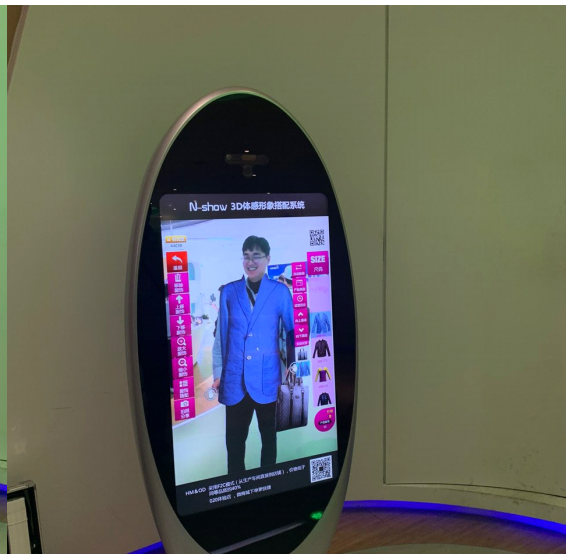
텐센트 중창공간은 베이징을 제외하고 소재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 특성, 도시의 강점에 맞게 육성하는 스타트업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베이징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스타트업을 육성하지만, 항주는 이커머스, 서안은 여행, 난징은 교육, 청두는 게임, 금화의 경우 MCM, 우한은 고등교육기관과의 산학협력, 하이난 하이커우의 경우 환경, 창사는 엔터테인먼트, 난창은 스마트카나 디바이스, 광저우는 소비시장, 상하이는 금융, 하얼빈은 로봇, 복주는 VR, 샤먼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키워드로 그 분야 스타트업을 찾아 육성합니다. 선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위주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유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텐센트 오픈플랫폼과 인큐베이터를 통해 배출된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치면 900억 위안(15조 4천 억 원) 가까이 된다고 들으니 15조라는 단위가 감히 상상이 가질 않았으며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는 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텐센트 산하 중창 공간에는 한국인도 와서 참여하고 있으며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사무실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반년 단위로 성과 보고를 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텐센트 산하 중창공간을 보고 난 뒤 정말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과 다른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목적인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습니다.

텐센트 산하 중창공간을 지나 텐센트 심천 본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

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었으며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텐센트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텐센트는 1998년 처음 창립된 회사이며 중국 최대의 종합 인터넷 회사이자 매출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회사이고 다국적 기업임과 더불어 현재 알리바바 그룹과 함께 중국 내에서 민간 대기업 중 투톱을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포털서비스로 시작하였으나, 메신저를 개발하여 한국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개발하여 중국의 카카오톡 역할을 하고 있고, 위챗 페이는 알리페이와 더불어 중국의 모바일 화폐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상태이며 게임, 웹드라마 제작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서비스 양상은 마치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섞인 느낌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중국 거대한 시장 규모로 인한 확장 속도는 차원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3nod 전시관입니다. 3nod는 1996년 심천시에 설립된 회사이며 사업 초기에는 플라스틱 금형제품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중국 시장의 멀티미디어 스피커 시장 잠재력을 깨달은 CEO 리유쯔슝은 1997년부터 멀티미디어 스피커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커 디자인 기술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조기에 확보해 성장성 또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로부터 품질 관리에 대한 자체 인증인 'Green Assessment' 인증까지 받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여 내수시장 1위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3nod가 위치한 심천시는 전 세계 멀티미디어 오디오 제품 생산의 중심기지가 되었으며 3nod는 이동식 멀티미디어, 디지털 스피커, 홈시어터, 기타 멀티미디어 주변 기기의 설계,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 멀티미디어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런 3nod 전시관에서 3nod가 제공하고 제작하고 있는 여러 스피커를 직접 사용해보고 품질을 점검해보았으며 중국의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 칠판으로 직접 수업도 받아 보았고,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툴을 통해 매장에서의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코디해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3nod의 기술력에 감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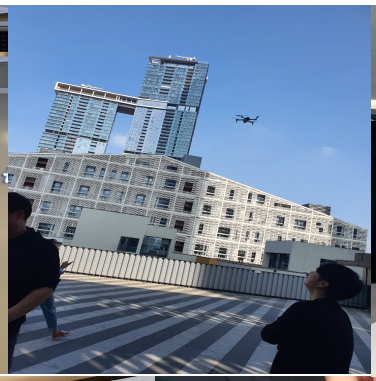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중국의 대표적 드론 업체인 DJI입니다.

DJI는 2006년에 심천시에 설립된 회사이며 이 회사는 2015년부터는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 제대로된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폰 짐벌의 경쟁력 또한 최정상급입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대부분의 소비자용 테크시장에서 미국/일본기업이 정상을 차지하고 중국은 가성비를 무기로 어느정도 파이를 가져가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드론시장에서는 DJI가 저가형, 중급형과 고급형을 따지지않고 절대적인 시장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1000시장, $1000~$2000 시장, $2000시장 모두에서 압도적인 70%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드론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양새이며, 소비자용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공군, 해군에서 중국 백도어 논란을 무릅쓰고 대량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쟁사 또한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2년 이상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벌 기업인 3DR의 촬용 기술을 접목시켜 자신들의 대표적인 모델에 탑재하여 공중 촬영용, 지상 촬영용, 기업 산업용, 농업용, 군사목적까지 드론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선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시장이 생각 외로 컸는지 중국 본사에서만 운영되던 스토어가 서울시 마포구에 2016년 3월 12일부터 DJI KOREA FLAGSHIP STORE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드론 규제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드론 규제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농업에서도 농약 살포를 이젠 인력이 아닌 드론을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고, 드론관련 자격증 또한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DJI에서 드론 비행을 실제로 경험해보았으며 드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장비, 종이와 연동되는 전자패드까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첨단 기술들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 자유 탐방 활동 내용

저희는 마지막 4일차 자유 탐방 활동에서의 목표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O2O서비스탐방과 경험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비슷한 맥락인 심천시의 화창베이를 탐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장 조재휘는 주로 탐방의 경로와 의사소통을 위주로 역할을 맡았으며 조원 김종호는 전반적인 탐방 일정에 대한 정보 탐색과 조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조원 김이삭은 중국어 의사소통과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배를 하여 탐방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숙소에서 화창베이로 이동하기 전 저희는 중국의 식문화를 스스로 느껴보기 위해 구글 맵을 이용하여 로컬 푸드가 많다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생선찜 요리인데 어느 정도 초벌 구이한 생선을 칼칼한 매운 소스로 쪄낸 요리이고, 오른쪽은 중화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볶음밥과 한국의 계란말이와 비슷한 계란 요리와 사천식 국물요리를 직접 중국어로 소통하여 주문하여 배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보기는 했지만 타보지는 못했던 심천시의 전기차 택시를 직접 이용하여 화창베이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 심천시 내에서는 경유, 휘발유차 택시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택시들이 전기차 택시였습니다. 전기차 택시여서 그런지 기본 요금 또한 당시 환율 1위안 168원 기준 한화 1680원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약 2배 조금 넘게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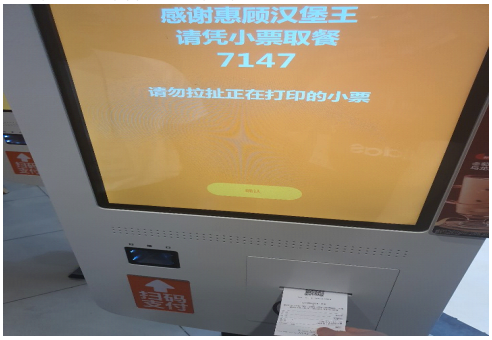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창베이까지는 총 15위안으로 약 2520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곳이 심천시의 화창베이입니다. 드론, 스피커, 핸드폰, 장난감, 이어폰 할 것 없이 모든 전자기기들이 즐비한 전자상가 거리인데 화창베이는 제품 제작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원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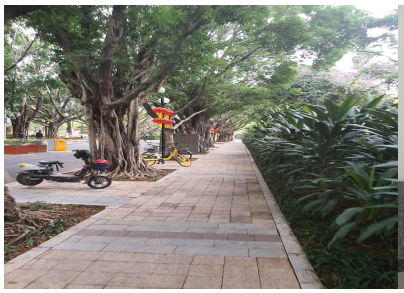
저희는 이 곳의 매장 주인분과 짧게나마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화창베이 매장 주인들은 대부분 선전 외곽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대형 EMS업체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뒷받침해주듯이 소모품이나 각종 재료들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창베이 거리는 이러한 전자상가들로만 이루어져있지 않고 백화점이나 다양한 음식 상권 또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정말 다른 점 중 하나였던 전자상거래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직접 알리페이를 사용하여 화창베이의 버거킹에서 주문하여 결제를 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안마기에 붙어있는 QR코드 모습인데 직접 이용해본 결과 삼성 페이 못지않게 정말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폐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과 지폐를 쓰고 나서 남는 동전과 같은 거스름돈을 담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정말 편하다고 느꼈으며 한국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국의 O2O서비스를 찾던 와중 길거리에서 한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와 비슷한 심천시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볼 수 있었으며, 건물 어디를 들어가도 볼 수 있었던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4일차를 비롯하여 1일부터 3일차 모든 일정 중에 보았던 배달 대행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동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러 다니는 모습은 흔히 한국에서 많이 보았던 배달의 민족 어플 회사에서 시행하는 배민 라이더스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한국의 더 발전된 미래를 생각하며 4일 차 자유 탐방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 후기

조장 조재휘 : 이번 4박 5일의 심천에서의 탐방일정은 정말 뜻깊고 새로웠습니다. 평소 상상하던 중국의 이미지는 한국보다 낙후된 뭔가 뒤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심천은 달랐습니다. 메트로폴리스의 크기는 LA나 서울에 비해서도 훨씬 거대했고 도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진 기술의 활용 또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의 결제시스템의 상용화로 현금이나 카드 사용을 대체한 점이 매우 편리해 보였으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공유 보조배터리, 공유 오피스 등 여러 공유 서비스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해외 탐방에 열의가 많은데, 그 일환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느낀 점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홍콩과 맞닿은 국경에 숙소가 있었는데, 가이드님의 설명과 더불어 홍콩과 심천 사이의 교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자세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또한 새로웠습니다.

번외로, 식문화는 전형적인 중국 요리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팀원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입에 맞지 않아 하고 한식을 선호하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이러한 본토의 중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새롭고 좋았습니다.

심천의 평균소득은 4만불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택시비나 외식비 등 여러 생활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부분이 많아서 참 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심천이라는 매우 큰 도시를 탐방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맛보기 식으로밖에 탐방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도시를 경험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조원 김종호 : 저는 이번 GLP를 통해서 해외를 처음 나가서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이웃나라인 중국이지만 다른 문화, 생활, 음식 등등 모든 면에서 새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심천이라는 도시의 느낌은 광화문,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등등 국내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곳들의 집합체와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탐방일정 중 MS Ignite The Tour에서 현재 IT업계의 현황과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협업도구와 미래기술 등을 습득하고 텐센트 창업기

지와 3nod,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창업환경이 수많은 액셀레이터와 인큐베이터의 뒷받침을 통해서 잘 갖춰진 것 같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을 심천 탐방을 오기 전에 발표에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가보면서 정말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의 모든 부품들이 심천에 있다는 것이 직접 만든 제품이며 모조품 등등 없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낮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든 산업에서 기존산업, 옛날 산업의 발목에 잡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도태되어지는 것이 1분 1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원 김이삭 : 이번 탐방을 가기 전까지 저에게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정말 가기 싫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인 '중국은 정말 더럽다.' '중국은 후진국이라서 차라리 일본을 가서 보고 배워라!' '중국은 짝퉁 천지이며 사람을 빼놓고는 다 짝퉁을 만든다.'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강국인 미국과 G1, G2를 놓고 경쟁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점차 호기심이 생기고 있던 와중에 좋은 기회로 하여금 중국 내 GDP 1위 도시인 심천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제게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번에 심천을 방문하며 '아 이런게 정말 4차 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국의 체계적인 스타트업 인프라와 노점상에서조차 QR코드를 들이밀며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운영 중인 모습, 손을 놓고만 있을 것 같았던 친환경적 정책까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하며 정말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 'IT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참 즐거웠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심천 탐방이었습니다.